

[Press Release] 총 7쪽

크리스 로 개인전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



○ 전시 개요

- 2023년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크리스 로 개인전
-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은 작가가 유머와 아름다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탐색한 첫 번째 결과물
- 기존에 사용해왔던 단조로운 색감에서 벗어난 다채로운 작업들과 내선 전화기, 낮은 평상 등 설치물이 조화를 이룰 예정

전 시 제 목: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

참 여 작 가: 크리스 로

일 정: 2023년 7월 6일(목) – 8월 4일(금)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 전시 내용

크리스 로 개인전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이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한국에 막 정착하던 시기 이방인으로서 느낀 일화를 바탕으로, 유머와 아름다움 사이 어딘가를 헤매며 그 둘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탐색한다.

크리스 로는 재미교포 2세로서 2010년부터 한국에 '역-이민'했다. 이후 한국에 살면서 경계인의 정체성으로 한국 문화를 마주하고 재해석하는데 줄곧 관심을 두었다. 체류 초기에는 한국의 시각문화와 디자인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온돌: a few warm stones』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그러나 《고요한 웃음》에서는 동양인의 겉모습을 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탐험하며 겪었던 터무니없는 실수들을 전시장이라는 진지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담담히 그려낸다.

미국과 한국 문화 사이 어디도 속하기 어려웠던 작가의 정체성은 견고한 미술의 영역에 유머를 녹여내는 작업으로 발현되었다. 그간 건축과 평면, 디지털 이미지와 수작업 사이 등 매체의 사이를 오갔다면 이번에는 주제적 차원에서 접근해 절대적 아름다운 공간에 균열을 가하는 유머를 시각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단조로운 색감에서 벗어나 여러 색을 연구한 뒤 다채롭게 조합했고 전시 공간이 주는 무거운 부피감을 탈피, 비정형의 낮은 평상을 들여와 공간 전체에 유머러스함을 더했다.

○ 작가 소개

크리스 로 (B.1976)

크리스 로는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다. 시애틀에서 태어난 크리스 로는 UC 버클리에서 건축을,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베를린과 뉴욕에서 활동하다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서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한국에 온 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공간 개념을 탐구하는 그래픽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축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혼성된 경험은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며 탐색하는 그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작품은 움직이고 공간을 활용하며 시적이고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성을 지니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공간의 개념이 평면이라는 보다 정적인 표면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빅토리아&알버트 미술관(V&A Museum), 파리 장식 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뮌헨 국제디자인박물관(Die Neue Sammlung)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수자원공사, 플랫폼엘,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에 영구소장 되었으며 전시되고 있다. 그는 현재 AGI(Alliance Graphique Internationale)멤버이다.

○ 작가 노트

아름다움과 유머. 아름다움 대 유머. 아름다움 / 유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머는 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유머는 제게 특별한 손님이자 친구였습니다. 유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영받는 단 하나의 친구였고, 유머가 있는 곳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유머와 비슷합니다. 제가 기억이란 걸 할 수 있던 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이룩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동력이 되고 자극이 되는 형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형태 말입니다. 실패한 적이 더 많지만, 이 같은 습관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어떤 형태를 봄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제 경험 속에서 아름다움과 유머는, 서로 정반대의 개념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듯 했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두 개념은 결코 만나거나 합쳐질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둘을 갈라놓는 것처럼 항상 분리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X와 Y, 1과 0, 북쪽과 남쪽처럼.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유머 감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동료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질문은 지금까지도 제게 주요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 작업 안에 유머를 넣어볼 순 없을까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유머, 이 두 세계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는 여전히 제게 중요하고,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늘 실패했었습니다. 두 개념을 결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 온 작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중하고 다소 우울한, 유머를 위한 여지도 공간도 없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아직 제겐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가 살아오며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반추해 보면, 아름다우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오리너구리(오르니토르힌쿠스 아나티누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여러 동물의 특징이 고루 발견되는 포유류인데, 다소 기이하지만 이 동물은 제게 아름답고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형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아름다움과 유머를 모두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것의 예는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여태 기억에 남는 이상한 이론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름다운 사람은 유머러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은 덜 노력하며 살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덜 발달된 것이라고요. 아름다움 덕분에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술을 키울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모욕적일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작은 데이터로 볼 때 이것이 때때로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처음 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세계를 결합하려 노력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세계가 항상 저를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쫓는 개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를 고민하는 동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유머는 선의에 뿌리를 내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유머를 결합해 보려 한 제 첫 시도는 앞 문장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웃음'이라 이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웃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웃음 소리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크게 웃을 만큼은 유머러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간 이어 온 제 고민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이번 전시가 적절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나지 않는 웃음은 적절한 시작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한 웃음은 난관을 마주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한 웃음 말입니다.

○ 전시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